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1.(화) 11:00 < 8.2.(수) 조간 > 배포 2023. 8. 1.(화)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4개 기업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방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미리 양성해서 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것으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초기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공장 가동 지연과 손실을 해소해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시범사업에는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성일하이텍(주) 등 4개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기업에 특화된 현장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받으며,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 동안 월 200만 원의 교육 훈련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일례로 성일하이텍(주)은 이차전지 관련 사업 확장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144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올해 말 준공되는 신공장에 투입할 신규인력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한다.

산업부는 지방투자의 효과적 유인책으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이며,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담당자	사무관	배은주 (044-203-4413)
			주무관	구은정 (044-203-44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개요**

□ (**지원개요**) 지방투자와 연계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 (**목적**) 지역투자 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기간**) '23년 시범사업 운영, (**예산**) 10.0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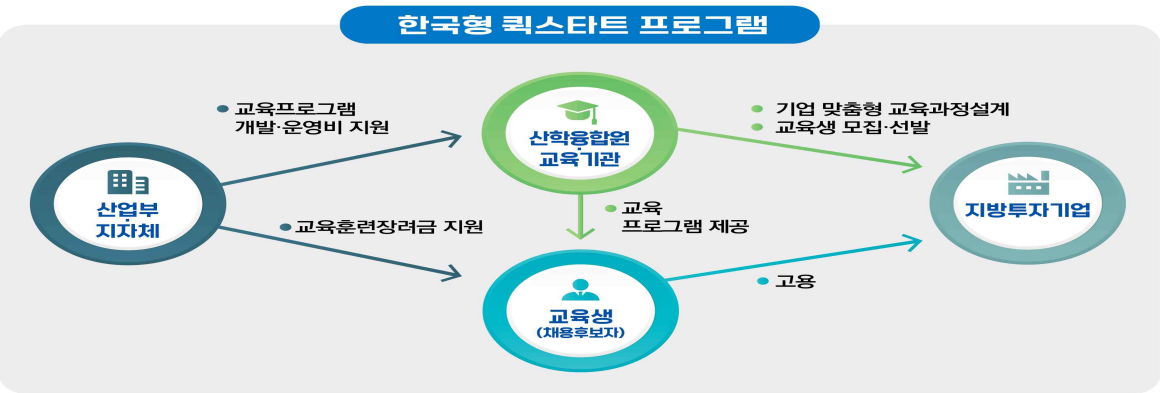
□ (**지원대상**)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교육생, 기업, 교육기관 선별

○ (**교육생**) 구직 예정자(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 內 거주자 우선) 중 해당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 (**기업**) 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신·증설에 따라 일정 수준(10명)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 (**교육기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 內 교육·기업지원 기관 중 지원기관과 해당 기업이 선발한 기관

□ (**지원내용**) 교육훈련 장려금 및 인건비, 기업 맞춤형 교육비 지원



< 참여기업 및 교육생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구분	참여기업	교육생
선정기준	• 지방에 신·증설 관련 투자기업 • 신규고용 최소인원 10명 이상	• 기업이 선발한 채용후보자 - 기업이 소재한 시·도내 거주자 우선
지원내용	• 채용시 인건비 월 50만원(최대 3개월) •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 교육훈련장려금 월 200만원(최대 3개월) (정부 100만원, 지자체 50만원, 기업 50만원)
의무사항	•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	• 재직기간 1년